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 2

본문 신 33 : 18 - 29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과 어제에 이어서, 각 지파별의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받는 축복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2. 해석 & 적용

1) 풍요로운 땅의 지파들 : 스블론, 잇사갈

레아의 다섯째와 여섯째 잇사갈과 스블론은 좋은 땅을 받아 축복을 누립니다. 스블론과 잇사갈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제단에 있는 산으로 이끌어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 안에는 페니키아, 이집트, 지중해 연안 섬들의 종 등 그들이 무역으로 상대하는 이방 민족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은 공동 성소에서 제사를 마칩니다. 그들은 지중해 해변의 일부를 점령하였으며, 바다의 풍부한 것들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해를 향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2) 용맹한 지파들 : 갓과 단

요단 동편 땅을 밟은 갓은 앗시리아, 아람, 암몬 등 여러나라의 침략을 받았지만, 싸움을 잘 하는 전사들이 있어 용맹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매우 풍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도 모음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라는 짧은 축복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지파이지만, 역습에 능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한 바가 있습니다. 훗날 그들은 북쪽 끝으로 가서 라기스에 정착하였고, 사자처럼 용맹한 지파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역시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3) 능력있는 지파 : 납달리와 아셀

납달리와 아셀은 레아와 라헤 같은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첩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인함과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납달리는 북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비옥한 땅을 받았고, ‘농인 암사슴’이라는 이름대로 자유와 민첩성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납달리와 지중해 연한 사이의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어,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부를 겸비한 지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